

1. 지원 동기 및 파견대학 소개

1.1. 지원 동기

안녕하세요 저는 Stanford Summer Session 24-25 에 다녀온 전기정보공학부 20학번 김호준입니다. 저는 올해 유학을 지원할 생각인데, 유학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서 미리 경험해볼 겸 지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험은 유학생 생활이 어떨지 미리 경험해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도 많은 것 같습니다.

1.2. Stanford University

스탠퍼드는 4쿼터제를 운영하며, 여름 학기에는 외부 학생들도 Stanford Summer Session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도 가능하여 캠퍼스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여름철 캘리포니아 특유의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학업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예술·스포츠 활동까지 폭넓게 제공되어 전 세계 학생들과 교류하며 학문적·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세미나 수업을 기대하고 왔는데 올해는 폐강되어 실망을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습한 날씨가 아니라서 밤이나 그들은 좀 쌀쌀합니다.

2. 출국 전 준비사항

2.1. Program 지원 [Stanford Summer Session]

다른 학교는 IHP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으나 서울대학교는 해당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써머세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기숙사 지원도 가능하고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 사이트는 합격 후 SUnet ID가 생기면 AXESS 웹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G-mail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Stanford는 Outlook을 사용합니다. Alias도 만들 수 있었고[ID: hojoonk@stanford.edu -> Alias: hojoon.kim@stanford.edu], SNU Gmail[hojoon.kim@snu.ac.kr] 로 포워딩도 가능했습니다. 학교에서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등 안내메일을 자주 보내줘서 어렵지 않고 놓칠 일 없습니다.

2.2. TOEFL

1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다른 학교 Summer Session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지원 마감일이 5월인데 저는 4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토플성적이 없

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5번의 시험을 예약하였고, 순서대로 96, 94, 97, 102, 106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토플 시험장 아주머니도 저를 기억해주셨습니다ㅎㅎ.

2.3. VISA, I-20

저는 F-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F-1 준비과정을 찾아보면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비자면접을 빨리 보는 것과, 비자면접 취소여석을 노리기 위해 자주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SNS 검사 시행 전이라 저는 검사를 안 받았는데, 혹시 몰라 제 계정을 한번 살펴보기는 하였습니다.

2.4. 장학금

- Early로 2월에 지원하면 자기소개서/학점 심사를 통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학점당 \$2000를 받고 온 IHP 학생을 보았습니다. 학생마다 지원금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 서울대에는 없는 IHP 프로그램으로도 장학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 장학금 심사는 IHP/Other 구분 없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웹에서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 저는 4월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장학금 지원은 가능했으나 나중에 Waitlist에 올라갔다는 메일이 왔고 결국엔 못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IHP 장점:
 - weekly program 신청 form 빨리 오는 경우 있음. [Cruise]
 - 수료 기념 행사도 있고 수료증 + 목에 거는 천? 같은 거 줌. 사실 이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 Dorm 행사가 좀 더 재미있어 보였음. (저는 친구 따라 갔습니다.)

3. 학업

수강신청 웹사이트를 Stanford AXESS 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재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합니다.

저는 졸업학점을 거의 다 채워서 학점 인정을 온전히 다 못 받아도 괜찮았으나, 실제 강의 시간보다 적게 서울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Stanford 의 강의자에게 미리 확인증을 받아두거나, Course Calendar 업데이트를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 CS107, Computer Organization & Systems - Adam Kepler (5 credit)

CSAPP의 일부에 대해 수업을 하는 과목입니다. 힙,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기말고사 중 한 문제는 format string bug라고 printf로 스택을 제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생이 해당 버그에 대해서 몰랐고, 시험 시간이 3시간이라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중에 해설을 보니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제가 상당히 많아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3.2. CS161,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 Matthew Sotoudeh (5 credit)

많은 학생이 Summer Session 기간 동안 많이 놀러 다닙니다. 이 과목은 중간고사 3번, 기말고사 1번을 치르기 때문에 저는 놀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알고리즘 과목이고, 저는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알고리즘 강의보다는 커버하는 범위가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4. 인턴

이 부분은 Summer Session에 온 다른 학생들, Stanford 학생들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교수님께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경험을 포함하여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잘 안 왔습니다. 운이 좋게 답장이 딱 한 분께 왔고, 그 랩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메일에 답장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실 다른 PhD나 MS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노력해서 인사를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먼저 물어보고, 출/퇴근할 때 먼저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 생활

5.1. Program [IHP/Other]

저는 Stanford University에서 모집을 받는 것에 지원하였습니다. Stanford 재학생을 제외하고 Summer Session에는 한국인이 총 3명 있었는데 POSTECH, DGIST, 숙명여대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전부 각자 학교에서 모집하는 International Honors Program(IHP)로 와서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2. Program-Weekly News [Soccer Match/Amusement Park – The Great America/Oracle Park/ SF Bay Cruise]

총 8주인데 매주 일요일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 주의 프로그램 목록들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프로그램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놀이공원이나 야구 경기는 마감미 빨리 됩니다. IHP 학생들에게 먼저 메일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IHP인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대신 신청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5.3. 기숙사

IHP 학생들은 East Lagunita, 다른 학생들은 West Lagunita에 거주하는 것 같습

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기숙사를 지원할 것인지 묻고,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에 삽니다. 스탠퍼드는 기숙사가 잘 되어있습니다. 또, 기숙사 계약금에 meal pla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meal/week).

Dorm에는 RA(Residential Assistant?)가 사는데 그분들이 바비큐 파티나 여러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또, WhatsApp 단체톡방도 생기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키를 두고 나와서 lock out 된 경우- 새벽에는 룸메이트를 깨우거나 \$40를 내고 Residence 본부직원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런던파이낸스? 출신)/중국인(NYU 출신) 친구와 함께 지냈는데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희 방 친구들은 전부 한국 스타일의 패션/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어 다른 방 친구들이 저만 한국인인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각자 스트레스 받는 점(연애, 커리어)을 얘기하며 해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1-2학년이라서 다른 방에서도 저의 인턴활동과 연구경험에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고는 했습니다.

5.4. Dining Hall [Stern/Lake Side]

Stern Dining Hall과 Lake Side Dining이 있었습니다. Stanford Menu라고 검색하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Stern Dining이 음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Meal plan은 두 곳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5. Car Rent [Zip Car/ Turo]

Zip Car를 통해 1~2시간 정도의 운전은 시간당 \$15 정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생 Plan 신청이 필요합니다.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연반납 1회는 넘어가주고 2회부터는 프로모션 가격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1분만 넘어도 \$50를 청구합니다. 미리미리 연장하기!

Turo는 장거리 여행 시에 Tesla를 렌트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Turo는 비싸지만, 사고를 안내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Tesla를 렌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ertz나 Enterprise에서 다른 차량을 더 저렴하게 렌트도 가능합니다.

5.6. 근처 여행지

SF/LA/Yosemite/Lake Tahoe/Canada/Napa-Sonoma Valley 정도를 많이 갑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하고 투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우니, 추억도 쌓을 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단체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싱가포르/중국/일본/독일 친구들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5.7. 먹거리/근처 한식당

- 배달은 DoorDash/UberEats 순으로 추천해 드려요.
- 학교 Dining Hall 말고는 학교 내에서는 The Tree house/Blend Eatery 정도를 추천합니다.

- 학교 밖은 한국음식점은 소공동 순두부를 추천합니다. 앞서 언급한 Zip Car 1시간 30분 예약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H-Mart가 있어, 라면이나 김치를 살 수 있습니다.

5.8. 필요한 물품

Amazon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첫날에만 그냥 매트리스 위에서 잤고, 다음날에는 Amazon에서 시킨 이불, 커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을 한국에서 가져가기에는 짐이 많아지니까요.

5.9. Website[AXESS/CANVAS]

AXESS – 학비 내는 사이트,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인쇄비도 청구합니다. 10월까지 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CANVAS - 수업 자료

5.10. Tennis [Taube South, West Campus Courts]

2개의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West는

<https://stanfordtennis.clublocker.com/login>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6. 경비

제가 학교에 낸 금액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보험은 타사의 저렴한 보험도 활용 가능하나 저는 혹시 몰라 커버가 제일 잘되는 학교 Cardinal Care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영수증을 보면 Late Fee가 있는데 한-미 이체 간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이체해야 합니다! 작은 이체는 Flywire에서 지원하는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였고, 큰 금액은 모인[Moin] 이라는 한국 업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자는 이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후자는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모인은 문의를 남기면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도 답이 빨리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없어 따로 미국 계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Due Date	Activity Date	Description	Amount
06/20/2025	05/21/2025	University Mail & Package Fee	\$30.00
06/20/2025	05/21/2025	West Lagunita House Dues	\$90.00
06/20/2025	05/21/2025	Housing Technology Fee	\$92.00
06/20/2025	05/21/2025	Summer 15 Meals/Week	\$1,907.00
06/20/2025	05/21/2025	West Lagunita Housing Charges	\$3,268.00
07/20/2025	05/23/2025	Document Fee	\$125.00
07/20/2025	05/23/2025	Campus Health Service Fee	\$261.00
07/20/2025	05/23/2025	Tuition	\$14,470.00
07/20/2025	05/24/2025	Health Insurance	\$1,905.00
07/20/2025	06/09/2025	Flywire Wire Payment	-\$4,700.00
07/20/2025	06/09/2025	Flywire Wire Payment	-\$4,700.00
07/20/2025	06/09/2025	Flywire Wire Payment	-\$2,148.00
07/20/2025	06/12/2025	Flywire Wire Payment	-\$4,700.00
07/20/2025	06/20/2025	Flywire Wire Payment	-\$2,400.00
07/20/2025	06/20/2025	Flywire Wire Payment	-\$1,000.00
07/20/2025	06/23/2025	Flywire Wire Payment	-\$2,500.00
07/20/2025	06/23/2025	Late Fee	\$25.00
08/20/2025	06/24/2025	Flywire Wire Payment	-\$25.00
	09/06/2025	ITS Student Print Charges	\$37.69
2024-2025 Summer Total			\$37.69

7. 방문학생/인턴을 마치는 소감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김희선 선생님과 공과대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학생/인턴 활동을 통해 학문적 역량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Stanford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바지하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 동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